

태국 불교 TV, 영국 교회 인수해 포교 나서

담마 미디어채널, "명상원 개원해 지역 주민 심신 달랠 것"

영국의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South Tyneside county)에 있는 고풍스런 옛 교회 건물에서 7월 29일 첫 법회가 봉행됐다.

더실즈가젯(The Shields Gazette)은 8월 2일 "세계적인 종교 케이블로 손꼽히는 '담마 미디어 채널(Dhamma Media Channel, 이하 DMC.TV)'가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의 랜트마크 중 하나인 '성 앤드루 교회(St Andrew's Church)' 건물 일부를 인수·개축해 명상원(Meditation Center)을 개원하고 7월 29일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DMC.TV는 태국 불교계의 주축인 담마카야 재단(Dhammakaya Foundation)이 재지 지원하는 세계적인 불교 전문 종교채널로, 현재 북미·호주·유럽대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 앤드루 교회가 들어선 엘리슨 거리(Ellison Street)는 빅토리아 시대(1837~1901) 최고의 조선포교

설립·경영했던 앤드류 레슬리(Andrew Leslie)에 의해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1800년대 조성된 곳으로, 지금까지 헵번 강변(Hebburn riverside)의 랜트마크로 주목받아 왔다.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행정당국은 이 곳에서 관광지로 주목받지 못한 고건축물에 대해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임대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DMC.TV 측이 성 앤드루 교회 일부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The Shields Gazette) 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명상원 원장 프라니콜라스 타니사르(Phra Nicholas Thanissaro) 스님의 집전으로 처음 봉행된 법회에는 지역 주민,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의 행·정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료됐다.

개원 법회에서 프라 니콜라스 타니사르 스님은 "옛 교회 건물에 명상원을 설립하는 데 동의해준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바란다"며 "DMC.TV 명상원은 지역 사회의 영적 활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Shields Gazette) 지는 지역 주민들의 말을 인용, "동의를 앞서 맨체스터와 런던 등지에서 개원·운영되고 있는 명상원 수 곳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19C 고딕양식 교회 일부 인수 주민들 "긍정적으로 기대"

이날 법회에 참여한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존 맥케이브(John McCabe) 지방의원은 "불교는 평화와 공존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다"며 "이는 명상원의 인근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측의 에드워드 존슨 홍보관은 "최근 DMC.TV 측이 최근 성 앤드루 교회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전문 종교채널인 담마 미디어채널이 일부 인수하여 명상원을 개원한 영국의 빅토리아 풍의 '성 앤드루 교회'.

사이에 큰 역할을 했지만, 근래 고건축물이라는 점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다는 게 아쉬웠다"며 "이곳에서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측의 에드워드 존슨 홍보관은 "최근 DMC.TV 측이 최근 성 앤드루 교회

전체를 사용할 의사를 밝혀 왔다"며 "사우스 타인사이드 카운티 행정당국은 이 제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앤드루 교회의 경우, 지난해 제로우 브레웨이(Jarrow Brewery)사가 교회 건물 일부를 양조장 시설로 개조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대만 스님, 미국서 '스타 강사'로 인기

"구오성 스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행 각광"

명상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북미지역에서 대만 불교계의 한 스님이 '스타 강사'로 떠올랐다고 리치몬드뉴스(Richmond News)지가 최근 보도했다.

화제의 스님은 바로 뉴욕 소재 '달마 드럼 수련원(Dharma Drum Retreat Center)'과 '첸 명상원(Chan Meditation Center)'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구오 성(Guo Xing) 스님이다.

(Richmond News) 지는 "구오 성 스님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행론이 리치몬드를 비롯한 북미 지역 명상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북미 지역에 들어온 명상이나 요가는 동양의 정신문화이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것이 실용문화이길 기대하며 배우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구오 성 스님이 주목 받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와 연민의 싹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한 구오 성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게 무엇인가'고 반문하고, '거친 일터에서 긴장감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움'이라고 강조하며 "명상은 그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비움'의 매개체"라고 말했다.

3년 전부터 구오 성 스님에게 명상을 지도 받고 있는 켄니 쿠(Jenni Kuo·벤쿠버 수산부 직원) 씨는 "점심시간 때 스님의 '수행원'에



미국 뉴욕서 스타강사로 인기를 끄는 구오성 스님

서 매일 명상하고 있다"며 "20분 남짓한 명상 시간이지만, 그 효과는 휴일 하루 수련한 산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라며, 구오 성 스님의 지도에 깊은 신뢰를 보였다.

지난 1990년대 초 북미 지역에 발을 들인 구오 성 스님은 대만불교의 고승인 성연(Sheng-yen) 스님의 제자이다.

"당시 처음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옛 일을 기억한 구오 성 스님은 "그들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결코 '예전의 그것'이 아니다"라며 "종교는 개인적인 경향이 더해져야 더욱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게 30년 가까이 지켜온 포교 현장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구오 성 스님은 오는 9월 5일까지 리치몬드에서의 공개 명상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초까지 북미 지역 곳곳에서 '공개 명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최대 행사, '요구르트 축제' 막 올라

예년과 달리 중국 경찰 경계태세 강화

많은 수의 불자들이 여행객들이 8월 6일 티베트에서 시작된 '쇼톤(Shoton)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

8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축제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드레퓀(Drepung) 사원에서 서막을 올렸다. 티베트 겐퓌과 최대 사원이기도 한 드레퓀 사원은 라싸 주변에 위치해 포탈라 궁이 지어지기 전까지 달라이 라마의 거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해마다 개막식은 드레퓀 사원에서 개최된다.

높이 30m, 폭 20m 크기의 화려한 실크로 수놓아진 석가모니 탱화가 100명의 스님들에 의해 장대한 규모를 드러낸다. 행사는 달라이 라마의 여덟 별장지인 노블링카(Norbu Lingka)에서 전통극 공연과 음식 축제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환경 보호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경

주도 열렸다.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소피아씨는 "이번이 5번째 티베트 방문"이라며 "탱화에 그려진 석가모니 위로 해가 비추는 모습이 경이롭다. 그래서 올 때마다 쇼톤 축제 개막의식을 챙기게 된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관광객 숫자가 늘었다. 라싸시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의 관광객 수가 2010년 축제 때 방문한 4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시당국은 드레퓀 사원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등 축제 준비를 위해 천 4백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톤축제는 티베트력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하얀겨울 끝난 스님들에게 신도들이 요구르트를 공양하는 풍습에서 유래했다. 요구르트를 의미하는 '쇼르'와 축제를 의미하는



8월 6일부터 열린 티베트 최대 축제인 쇼톤 축제. 대형 과불을 사원 뒷산에 내거는 것으로 축제는 시작된다. 이 행회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기다린다. 심지어는 며칠 전부터 맞은편 산에 오를 티베트인들도 있다하니 그들의 심심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툰'이 결합된, 일명 요구르트 축제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검문을 강화했다

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전했다. 최근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승려들의 분신사고가 이어져 이

를 방지하고자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원측도 역시 일어난 미연의 사고에 대비해 경찰과 소방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소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리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리디카)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제2기 지도사 과정 모집 (1급, 2급)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인성, 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10~11월 60시간 ▶1급: 11~12월 60시간
워크숍, 교재, DVD, 교육 참관, 자격증 수여
▶문의: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사)동국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시가 2013-4호
사단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중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동조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 법인설립 하실 분 (종단) 문의 환영.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스 051) 256-8005
직통 010-3262-100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